

‘금호타이어 공장이전 지원단’ 구성...함평 이전 논의

광주시·국회·정부·지역사회 참여...공장 화재 후속조치 나서 금타공장 재가동·함평 신공장 신축 관련 절차 간소화 지원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호타이어 공장이전 지원단’ 구성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노조 대표를 만나 ‘광주공장 재건 및 함평 이전 노사 합의안’의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지난 30일 발표된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안의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이 자리에는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김명선 부사장, 황용필 제1노조 대표, 강정호 제1노조 국성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날 ‘금호타이어 공장이전지원단’ 구성·운영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전 지원단은 광주시를 중심으로 금호타이어, 국회, 광주시의회, 광산구, 함평군 등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당사자들로 구성된다.

광주시는 지원단을 ‘범사회적 협력기구’로 조성해 조만간 참여 기관 의견을 수렴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후 지원단을 통해 금호타이어 경영진·노조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공장이전 지원 내용과 범위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광주1공장 재가동을 위한 부분 재건과 함평 신공장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금호타이어측이 광주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대로 개발사업자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해 공장이전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면담에서는 화재 피해 대응을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팀(TF)’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금호타이어 화재 직후 출범한 민관합동특별팀

(TF)은 경제, 고용, 환경·보건, 주민지원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와 관련기관, 각계 전문가, 시민 대표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했다.

이날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노조도 광주시의 화재 수습 적극 지원과 이전지원단 구성에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광주공장 부지 매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공장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에 지속적인 도움과 행정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용필 금호타이어 제1노조 대표도 “신속한 공장 이전으로 지역의 고용과 경제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안에는 화재 피해 광주공장 근로자의 고용 안정, 생산량 유지 전제의 광주1공장 부분 재가동, 함평 빛그린국가산단 내 연 530만본 생산 1단계 공장 신축, 광주공장 부지 매각 때 광주1공장 함평 이전과 2단계 공장 신축 계획 등이 담겼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폭우 대비 시설물 점검
광주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12일 석정동 시설하우스에서 시설 농민과 함께 폭우로 넘어진 지하수 관정과 전봇대 등을 살펴며 태풍, 폭우에 대한 기상재해대비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김영록 지사 “위생·친절·합리적 가격...관광서비스 대전환 할 것”

‘혼밥 면박’ ‘걸레 수건’ 등 여수 관광 실태에 사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혼밥 면박’, ‘걸레 수건’, ‘잔반 재사용’ 등으로 비판을 받은 여수 관광 실태에 대해 사죄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는 관광서비스 대전환에 나서겠다”는 도민 답화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올해와 내년 5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국제행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편을 겪고 실망한 관광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관광 전남의 명에 실추돼 마음 아파할 도민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올해 국제수목비엔날레(8월 30일~10월 31일), 남도국제미식박람회(10월 1일~10월 26일), 국제농업박람회(10월 23

일~29일) 등이 열리고 내년도에도 여수세계세박람회(9월 5일~11월 4일)이 예정돼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남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똥먹 있는 관광 전남”을 위한 3대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대 전략으로 ▲음식점·숙박업소의 위생관리 대폭 강화 ▲진심어린 환대문화 정착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등급제 인증 업소를 중심으로 ‘인심 먹거리 존’을 조성하고 잔반 재사용 금지, ‘우수 숙박 정결 인증’ 업소를 확대(900개→1000개)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혼밥 가능 음식점을 지정(1인용 식탁 1000개 보급) 요금 사전 신고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과 업소를 1대 1로 연결한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불친절 민원 업소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면서 특별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여개 관광안내소를 ‘전남관광안심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기존 ‘JN TOUR’ 앱에 불편 접수 시스템 도입해 ‘신고접수 대표전화’ 등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관광객 1억명 시대, 세계가 전남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의향, 예향, 미향이라는 전통 위에 똥먹 있는 관광 전남이라는 명성을 더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항일독립유산 8건 문화유산 지정

여수 거문도 항일 유적 등

전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민 공모를 거쳐 ‘항일독립유산’ 8건을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시·군 공모를 진행해 11개 시·군의 유산 22건을 접수받은 뒤 문화유산 전문가의 서면 검토와 현지 조사를 거쳐 역사적 가치와 보존 상태, 시대적 대표성 등을 고려해 8건을 선정하고 광복 80주년을 앞둔 14일 최종 지정 고시한다.

지정 항일독립유산은 ▲여수 거문도 항일 유적

▲광양 매천 황현 생가와 묘소 ▲구례 고광순 항일 전적과 순절비 ▲고흥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 ▲화순 양회일 항일 의병 유산 ▲해남 심적암 항일 의병 전적 ▲완도 오석군의 편지 ▲신안 두류단과 바위글씨다.

여수 거문도 항일 유적은 거문도 주민의 항일 저항·민족운동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임병찬 순국터와 안노루섬 고두리영감 제당으로 구성된 복합 유적이다.

광양 매천 황현 생가와 묘소는 경술국치에 절명시를 남기고 순국한 지식인 매천 황현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이다.

구례 고광순 항일전적과 순절비는 1907년 연극사 전투에서 순국한 고광순 의병장을 기리는 남도 의병사를 대표하는 순절 기념비다. 고흥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은 1909년 전남 의병항쟁 상황의 문헌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해남 심적암 항일 의병 전적도 불교계 무장투쟁의 중요 사례로 의미가 있는 현장이다.

완도 오석군의 편지는 비밀결사 ‘수의위천계’의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이고 신안 두류단과 바위글씨는 유배와 강학, 의병 활동, 근대 유학의 계승을 보여주는 역사유적이다.

전남도는 유산별 특성에 맞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역사교육,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개정...대피로 폭 990mm로 확대 등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배리어프리’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을 개정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광주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도시철도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대피로(화재 등 비상 발생대 승객·승무원이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복선 터널에 설치된 보도 또는 비상통로) 폭을 990mm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mm까지 좁

혀 발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은 750mm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mm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시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 등 안전과 인권이 조화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